

유아 및 어머니 변인이 유아공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공감 면접도구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Children's and Their Mothers' Variables on the Empathy of Children:
Focusing on the Children's Empathy Interview Tool

국은순¹ 이진숙²

Eunsun Kook¹ Jinsuk Lee²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mpathy of children aged 4 to 5 through the empathy interview tool and to verify the effects of children's and mothers' variables on the children's empathy.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02 pairs of children aged 4 to 5 and their mothers. The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children's interviews and mothers' questionnaire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First, girls exhibited a higher level of empathy than boys. Second,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mothers' empathy, parenting behavior, emotional expression, and children's empathy. Third, the influences of independent variables on children's empathy followed the order of mothers' emotional empathy, positive emotional expression, and children's gender.

Conclusion/Implications: This study identified variables in children and their mothers that influenced children's empathy. These findings contribute to a deeper understanding of children's empathy and can serve as fundamental data for intervention programs aimed at enhancing children's empathy.

Key words empathy, parenting behavior, emotional expression, children's empathy interview tool

*본 논문은 2023년 전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및 2023년 한국 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1 제1저자

전북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과(아동학 전공) 박사

2 교신저자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e-mail: jslee0820@jbnu.ac.kr)

I. 서론

인간은 소속감의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필요한 심리적 요소가 바로 공감이다.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생각·감정·의도와 같은 내적인 상태에 대한 인지적 인식과 다른 사람에 대한 대리적인 정서적 반응으로 정의되어 왔다(김홍일, 2006). 즉 타인의 감정·생각을 이해하는 인지적 공감과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경험처럼 느

기는 정서적 공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박성희, 1994; Davis, 1980)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 뿐 아니라 상대의 심리적 상태를 함께 공유하고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기는 인간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은 또래와의 관계뿐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 요구되는 중요한 역량이라 할 수 있다. 유아의 공감능력은 유아의 또래관계 및 심리사회적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공감능력이 높은 유아는 또래와의 협동적 학습과 배려행동이 높고(송수희, 2014; 안선정, 2019) 타인의 감정을 잘 알아차림으로써 또래와의 갈등상황에서 관계개선에 도움이 되며(김진희, 2009; 박성희, 2004), 사회성 및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용주, 백승학, 2017). 반면, 공감이 낮은 유아는 다른 사람의 의도와 정서를 파악하지 못하여 공격성향이 나타날 수 있으며(Campbell et al., 2000) 친구를 밀치거나 때리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갈등을 해소하여 또래로부터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았다(오명자, 신유림, 2019).

또래관계 및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공감능력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느끼기 시작하는 유아기부터 발달한다. 공감능력의 발달과 관련하여 Hoffman(2011)은 이타성과 도덕성 발달의 중요요인으로 공감을 강조하고 유아기부터 공감능력의 발달을 위한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David(2013) 또한 공감은 생애초기부터 발달하는 심리적 요인이며 이후 사회성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공감발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았다. 요컨대, 타인과의 관계를 맺고 더불어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능력인 공감은 유아기부터 습득되어야 하는 중요한 심리적 특성이며, 이에 유아의 공감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들을 파악하고 적절한 중재방안을 제안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공감을 포함한 유아의 발달은 개인이 가지고 태어나는 특성 및 환경요인과 관련이 있으므로 유아공감에 영향을 주는 유아변인과 부모요인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먼저 유아변인 중 성별에 대해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공감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고희갑 등, 2015; 장미선, 문혁준, 2004; Auyeung et al., 2009; Jolliff & Farrington, 2006). 연령과 공감의 관계를 보면, 유아연령에 따라 공감능력이 증가한다는 연구(강보람, 2017; Borke, 1971; Feshbach & Roe, 1968), 연령과 공감발달이 관련이 없다는 연구(장미선, 문혁준, 2004; Bryant, 1982) 등 상반된 결과가 보고되었다. 다음으로, 유아 개인특성인 기질은 개인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속성으로(Thomas & Chess, 1977) 공감과 같은 개인의 정서적 반응이나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예컨대, 사회성기질은 공감과 정적상관이 있는 반면(노성은, 1999; 장미선, 문혁준, 2004) 정서성기질은 타인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유능성이나 공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김목경, 2019; 노민지, 2008; 문보경, 2012). 즉 사회성기질은 타인과 함께하기를 좋아하는 성향으로 공감발달을 촉진하는 반면, 정서성기질은 주위환경의 부정적 자극에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으므로(Buss & Plomin, 1984) 공감발달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감을 포함한 유아의 정서행동 발달의 기초는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초기 모-유아 관계가 이후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아의 공감발달에 중요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의 공감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으로 어머니 공감, 양육행동, 정서표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발달이론가들은 공감의 세대간 전이를 주장하며(Stern,

2016), 부모의 공감이 유아의 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마치 자신의 감정으로 느끼는 공감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수적인 요인이며(문승미, 2006; 이숙, 류현강, 2014), 부모가 자녀의 생각과 느낌을 이해하고 공감적인 반응을 보일수록 유아기 자녀의 공감반응은 증진된다(안미현, 김정미, 2017). 공감능력이 높은 부모는 자녀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지적인 상호작용을 제공함으로써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여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데 도움을 준다(김영희, 고태순, 2014; Clark & Ladd, 2000). 이처럼 부모의 공감과 유아공감 간의 긍정적 관련성이 예측되에도 불구하고 유아기 자녀를 대상으로 공감의 세대간 전이를 밝힌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어머니의 공감이 자녀의 공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공감의 세대간 전이를 밝히고자 한다.

다음으로, 양육행동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보이는 태도나 행동으로 크게 긍정적 양육행동과 부정적 양육행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긍정적 양육행동은 자녀에게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자녀의 요구에 적절히 반응하는 행동이며, 반대로 부정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고 순종을 강요하는 행동이다(손상희, 2013; 최은정, 2015). 이러한 양육행동은 자녀의 공감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예컨대, 어머니가 자녀에게 애정 및 합리적 설명과 함께 규칙을 제공할수록 유아의 공감능력이 높고(최은정, 2015), 애정적·허용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공감능력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양, 2015). 반면, 부모가 자녀에게 과잉간섭과 통제적·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자녀의 공감능력이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임희진, 진미경, 2014; 조혜리, 2009; Feshbach, 1975).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애정적·자율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공감능력과 정적상관을 보였으나 거부·통제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공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조혜리, 2009; 지소라, 2009). 이는 양육행동이 자녀의 공감발달에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정서표현성은 가정에서 부모가 가족 및 자녀에게 표현하는 정서를 뜻하는 것으로 긍정적 정서표현성과 부정적 정서표현성으로 구분된다(Halberstadt et al., 1995). 긍정적 정서표현성은 가정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기쁨, 칭찬, 감사, 애정 등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며, 부정적 정서표현성은 불만, 무시, 화, 비난 등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다. 자녀는 부모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부모의 정서표현을 관찰·모방함으로써 자신의 정서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인식하게 된다. 어머니가 평소 유아기 자녀에게 기쁨이나 감사와 같은 긍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보일수록 유아는 타인에게 더 많은 배려행동을 보인다(문미라, 2017; Eigenberg & Fabes, 1994). Denham과 Kochanoff (2002)는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을 통해 유아기 자녀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타적이며 협조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머니가 자녀에게 표현하는 불만·무시·비난과 같은 부정적 정서표현은 자녀의 또래유능성, 또래수용도와 같은 사회적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권연희, 2013; 이승미, 2015; 이양순 등, 2006). 부모의 정서표현성과 유아공감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미비하나, 선행연구를 통해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정서표현성이 유아기 자녀의 정서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유아공감 간의 관련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유아의 공감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유아의 발달에 적합하고 타당한 공감능력 측정도구가

요구된다. 유아공감평가 방법으로는 부모·교사 대상 질문지법(강민주, 2010; 안선정, 2019; Auyeung et al., 2009), 공감과제를 활용한 유아대상 면접법(강보람, 2017; 김진희, 2009; 류현강, 2015; 정하나, 2015; Eisenberg & Lennon, 1980; Feshbach & Roe, 1968; Howe et al., 2008), 유아 행동관찰 및 생리학적 변화측정(김효진, 2017; Stern, 2016) 등이 있는데, 이중 부모대상 질문지법과 유아대상 면접법이 주로 활용되어 왔다. 질문지법의 경우 보고원인 부모의 사회적 바람직성이 반영되어 자료의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는 반면, 유아대상 면접법은 인지·언어발달이 미흡한 유아에게 친숙한 일상의 이야기와 그림을 함께 제시하여 공감을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측정도구라 할 수 있다. 한편, 선행연구의 면접법에서 사용된 공감상황 과제를 살펴본 결과 면접도구의 이야기과제와 실시방법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내 선행연구(류현강, 2015)의 경우 기존의 면접도구(Eisenberg & Lennon, 1980; Feshbach & Roe, 1968)에 기초하고 있어 이야기과제의 내용이나 실시방법이 현 시대에 적절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유아들의 스마트폰 및 디지털매체 사용이 증가한 만큼, 변화된 사회적 환경에서 발생빈도가 낮은 이야기과제의 내용을 수정하고 유아에게 보다 적합한 방법으로 면접도구를 구성한다면 유아의 공감을 더 잘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예비조사를 통해 공감면접도구를 수정·보완하여 공감능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유아의 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변인과 어머니 변인, 그리고 유아의 공감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에 관해 살펴보았으며, 선행연구를 토대로 유아 변인과 어머니 변인이 유아의 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의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면접도구를 통해 만 4~5세 유아의 공감수준을 살펴보고, 유아 변인(성별, 연령, 기질) 및 어머니 변인(공감, 양육행동, 정서표현성)과 유아공감 간의 관련성, 그리고 유아 변인과 어머니 변인이 유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떠한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4~5세 유아의 공감수준을 파악하고 유아의 공감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을 밝힘으로써 유아의 공감능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자료를 제공하여 유아의 사회적 관계 증진 및 적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공감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유아변인(성별, 연령, 기질)과 유아공감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어머니변인(공감, 양육행동, 정서표현성)과 유아공감의 관계는 어떠한가? 넷째, 유아변인, 어머니변인이 유아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J시의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4~5세 유아와 어머니 102쌍이다. 연구대상자를 4~5세로 선정한 이유는 생후 3~4년이 지나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초보적인 공감능력이

발달하기 때문이다(Davis, 1994). 연구대상 유아의 성별, 연령, 출생순위,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은 표 1과 같다. 유아 중 남자는 53명(52%), 여자는 49명(48%)이며, 연령은 만4세가 50명(49%), 만5세가 52명(51%)으로 성별과 연령의 분포가 편중되지 않고 적절하게 분포되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30대가 가장 많고, 학력은 대졸, 전문대졸, 고졸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배경 (N = 102)

		n(%)	변인	n(%)	
아동 성별	남	53(52)	아동 출생 순위	첫째	39(38.2)
	여	49(48)		둘째	37(36.3)
아동 연령	만4세	50(49)	외동	셋째이하	9(8.8)
	만5세	52(51)		외동	17(16.7)
어머니 연령	29세 이하	7(6.9)	어머니 학력	고등학교 졸업	17(16.7)
	30세~34세	23(22.5)		전문대 졸업	37(36.3)
	35세~39세	40(39.2)		대학 졸업	41(40.2)
	40세 이상	32(31.4)		대학원 이상	7(6.9)

2. 연구도구

1) 유아공감 면접도구

유아공감 면접도구는 Feshbach와 Roe(1968), Eigenberg와 Lennon(1980)의 도구에 기초하여 신뢰도와 내용타당도를 제시한 류현강(2015)의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면접도구의 구성과정과 면접 실시방법, 채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유아공감 면접도구의 구성

가) 유아공감 이야기과제 선정

류현강(2015)의 면접도구는 4가지 기본정서(기쁨, 슬픔, 화남, 무서움)를 기초로 각각 2개의 상황과제 그림으로 구성되며, 그림자료를 유아에게 제시하고 그 반응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이 도구를 본조사에 사용하기에 앞서 이야기과제의 내용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대상은 J도 소재 어린이집 재원 유아(4~5세) 52명이었다. 연구자가 유아들에게 기쁨, 슬픔, 화남, 무서움의 정서에 대해 소개한 후 각각의 정서상황과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지 개방형 질문을 한 결과, 류현강(2015)의 연구에서 사용된 8가지 주제 외에 새로운 주제들이 도출되었다. 이에 유아의 응답빈도가 높은 4개 이야기주제를 구성한 다음, 4가지 이야기 중 전문가 평가를 통해 주제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삭제하고 2개의 이야기를 최종 면접도구에 포함하였다(기쁨: ‘친구가 놀아줌’, 화남: ‘부모님이 스마트폰을 빼앗아감’). 또한 이야기 내용이 현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지 않는 내용을 수정하였다(예: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는 것’은 어린이집에서 칭찬스�티커 받기로 수정). 선정된 이야기과제에 대해 전공교수와 아동학박사 2인에게 이야기내용의 적

절성을 검토받은 후 10개주제를 선정하였으며, 최종 선정된 공감이야기과제(Empathy Story Task)의 내용은 표 2에 제시하였다.

나) 면접도구 제작

최종 선정된 유아공감 이야기과제로 PPT슬라이드를 제작(녹음 포함)하였다.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그림카드를 활용하여 검사자가 이야기 상황을 읽어주고 질문하는 방식으로 면접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검사자의 목소리 톤이나 표정, 기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PPT슬라이드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야기과제(10개)를 그림자료로 만든 후 PPT비디오만들기 기법에 따라 연구자가 직접 녹음하였으며, 비언어적 추정을 위한 얼굴표정(기쁨, 슬픔, 화남, 무서움, 무표정)은 그림카드로 제작하였다. PPT슬라이드를 활용한 면접은 유아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면접시간을 단축시키며, 각 과제에서 제시되는 목소리가 동일하고 일정하게 전달되어 일관성있는 면접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2. 유아공감 이야기과제(최종 선정 10개)

정서	이야기과제 상황
기쁨	①생일파티 (기존과제) 오늘은 영희의 생일이예요. 엄마는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영희는 친구들과 함께 생일파티도 하고 선물도 받았어요.
	②그림그리기에서 칭찬 스티커 받음 (수정) 오늘은 어린이집에서 그림을 그리는 날이예요. 철수는 친구들과 함께 그림을 그렸어요. 철수는 그림을 열심히 그려서 칭찬 스티커를 받았어요.
	③친구들이 놀아줌 (추가) 영희가 혼자 그림책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친구가 다가와서 같이 놀자고 했어요. 영희는 친구랑 같이 퍼즐 맞추기를 하며 재미있게 놀았어요.
슬픔	④다리를다쳐 놀이공원에 못가게 됨 (기존과제) 내일은 어린이집에서 놀이동산으로 소풍을 가는 날이예요. 철수는 자전거를 타다가 '꽂당'하고 넘어져서 다쳤어요. 철수는 놀이동산도 못가고 혼자 방에 누워있게 되었어요.
	⑤강아지를 잃어버림 (기존과제) 영희와 강아지 '뽀뽀'는 항상 같이 놀던 친구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뽀뽀가 없어졌어요. 영희는 뽀뽀를 찾아다녔지만 아무데도 보이지 않았어요.
화남	⑥동생이 내 일을 방해함 (기존과제) 영희가 어린이집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영희의 그림에 낙서를 했어요. 영희가 동생에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계속 낙서를 했어요.
	⑦형에게 장난감을 빼앗김 (기존과제) 철수가 너무도 갖고 싶어하던 장난감을 아빠가 사주셨어요. 철수는 아빠가 사주신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그때 형이 와서 장난감을 빼앗아갔어요.
	⑧가지고 놀던 스마트폰을 빼앗김 (추가) 철수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정말 하고 싶은 게임이라 신이 났어요. 하지만 엄마가 말도 없이 스마트폰을 빼앗아 가버렸어요.

표 2. 계속

정서	이야기과제 상황
무서움 ⑨마트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림 (기존과제)	영희는 엄마 아빠와 함께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서 과자도 사고 장난감도 구경했어요. 그런데 그만 영희는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어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마트에서 혼자가 되었 어요.
⑩밤에 무서운 꿈 (기존과제)	철수는 밤에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귀신이 나오는 꿈을 꾸다가 깨어났어요. 일어나보니 깜깜한 방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2) 실시방법

유아공감 면접은 조용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연구자가-유아의 일대일 면접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유아와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며 라포를 형성하고 4가지기본정서의 얼굴표정카드를 보여 주고 유아가 대답하는 감정과 얼굴표정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그 다음 이야기과제 PPT슬라이드를 보여준 후 PPT슬라이드 속 주인공의 기분을 묻는 인지적 공감 질문과 주인공 상황에 대한 유아자신의 기분을 묻는 정서적 공감에 대해 질문한다. 주인공이 강아지를 잃어버린 PPT슬라이드를 유아에게 보여준 후 감정을 추론하는 인지적 공감 질문으로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기분이 어떨까?’라고 물어보고 언어로 표현하게 한 다음 얼굴표정 그림카드에서 주인공의 기분과 일치하는 표정을 가리키도록 한다. 이어서 대리적 정서반응에 해당하는 정서적 공감 질문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 00의 기분은 어떠니?’라고 물어보며 언어로 답한 후 얼굴표정 그림카드에서 피검자 유아의 기분과 일치하는 표정을 가리키도록 한다. 검사자는 유아의 언어적·비언어적 반응을 반응기록지에 기록하고 채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배정하였다.

(3) 채점기준

언어적 반응의 채점기준은 유아의 정서반응이 이야기 속 주인공의 정서와 일치하지 않거나 모름·무반응일 경우 0점, 일반적으로 ‘좋아요-나빠요’차원에서 맞는 답을 말할 경우 1점, 적절한 정서를 표현한 경우 2점을 준다. 비언어적 반응의 채점기준은 주인공의 감정과 전혀 다른 얼굴표정의 그림카드를 가리키거나 모른다고 응답할 때 0점, 적절한 얼굴표정 그림카드를 가리킨 경우 1점을 부여한다. 유아의 인지적공감과 정서적공감 점수는 언어적 반응점수(0~2점)와 비언어적 반응점수(0~1점)를 합한 점수(0~3점)가 되며, 1개의 이야기과제당 인지적·정서적 공감이 각각 0~3점의 점수를 받는다. 본 연구는 공감 이야기과제를 10개로 구성하였으므로 인지적 공감 0~30점, 정서적 공감 0~30점, 총 0~60점의 점수를 받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공감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2) 어머니용 질문지

어머니용 질문지는 어머니의 공감, 양육행동, 정서표현성 및 어머니가 지각한 유아의 기질을

평가하도록 구성하였다. 각 척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어머니 공감 척도

어머니 공감 척도는 Davis(1994)가 개발한 대인관계 반응지수(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번안·수정하여 사용하였다. IRI는 총 28문항으로 인지적 공감(관점취하기, 상상하기)과 정서적 공감(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중 개인적 고통은 정서적 공감보다 동정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Jolliffe & Farrington, 2006)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고통을 제외하고 인지적 공감(관점취하기·상상하기, 14문항), 공감적 관심(정서적공감, 7문항)에 해당하는 21문항을 사용하였다. 인지적 공감은 타인의 입장이 되어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및 영화·소설 속의 인물이 되어보는 상상력을 의미한다(예:‘타인을 비판하기 전에 그 입장을 생각하려 한다’; ‘이야기나 소설을 읽을 때 그 상황이 나의 일이라면 기분이 어떠할지를 상상한다’). 정서적 공감능력인 공감적 관심은 타인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나 관심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예:‘누군가 이용당하는 것을 보면 보호해주어야 할 것 같다’). 5점 Likert 척도에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인지적·정서적 공감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어머니 공감전체는 .82이며 인지적 공감 .75, 정서적 공감 .73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 양육행동 척도

선행연구를 토대로 유우영(1998)이 제작한 어머니 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애정(7문항), 거부·통제(7문항), 과보호(7문항), 일관성(7문항), 독립적 지향(6문항)의 5개 하위요인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Schaefer(1959)의 애정적 차원과 거부·통제적 차원에 따라 애정(7문항), 거부·통제(7문항)에 해당하는 14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애정적 양육이란 자녀를 따뜻하고 친밀하게 대하며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말하며(예:‘자녀를 껴안아주고 다독거리 준다’), 거부·통제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요구보다 부모의 기분에 맞추도록 강요하거나 자녀에게 불만과 비난을 표현하는 것(예:‘부모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따르도록 한다’)을 의미한다.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애정적 또는 거부·통제적 양육행동이 많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는 애정적 양육행동은 .83, 거부·통제적 양육행동은 .63이었다.

(3) 어머니 정서표현성 척도

Halberstadt 등(1995)이 개발한 정서표현성 척도(Self-Expressiveness in the Family Questionnaire: SEFQ)의 간편형인 Short Form of the SEFQ를 여은진(2009)이 번안·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정서표현성(간편형) 척도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초점을 둔 척도로, 어머니가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정서표현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본 척도는 긍정적 정서표현성 10문항(예:‘다른 가족들에게 기분좋은 정도를 말한다’), 부정적 정서표현성 12문항(예:‘가족의 행동에 불만족스러움을 표현한다’)으로 총 22문항이며 내용타당도와 구성타당도가 검증되었다. ‘긍정적 정서표현성’은 가족에게 자신의 감정과 감사 및 애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정적 정서표현성’은 가족의 실수나 의견충돌에 대해 슬픔을 표현하고 가족의 행동이나 문제에 대

해 비난하거나 화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정서표현성이 자주 나타남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는 긍정적 정서표현성 .78, 부정적 정서표현성 .80으로 나타났다.

(4) 유아기질 척도

Buss와 Plomin(1984)이 개발하고 한세영(1996)이 변안·수정한 유아기질 척도(Emotionality, Activity, Sociability: EAS)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부정적 정서성(6문항), 활동성(6문항), 사회성(8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나 유아 공감발달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활동성을 제외한 부정적 정서성(예: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낸다')과 사회성(예: '사람들을 좋아하고 잘 따른다') 문항 14개를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이며, 부정적 정서성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기분이 쉽게 나빠지고 화를 잘 내는 기질임을 의미하며, 사회성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타인과 함께 하는 상황에 적응을 잘하는 기질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Cronbach's α 는 부정적 정서성 .73, 사회성 .80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 예비조사: 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4~5세 유아 20명을 대상으로 면접절차의 적절성, 질문내용에 대한 유아의 이해정도, 면접시간 및 진행방식의 어려움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유아를 두 집단으로 나눈 후 한 집단은 <그림카드>를 직접 보여주고, 다른 집단은 PPT슬라이드에 이야기를 녹음한 그림자료를 태블릿으로 제시하였다. 이야기과제를 태블릿으로 제시한 유아들이 면접도구에 흥미를 보이며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면접시간은 유아 개인당 평균 10~15분 정도 소요되었다.

- 본조사 : 본조사는 2022년 4월~7월에 진행되었다. J시 어린이집(20여개)에 연구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4개 기관의 연구참여를 허락받았으며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담임교사를 통해 어머니용 질문지와 동의서를 가정에 전달하였다. 총 220부 중 135부가 회수되었고, 동의서를 받은 유아에 한해 공감면접을 실시하였다. 원장과 담임교사의 동의하에 유아 면접시간을 조율하고, 조용하고 독립된 장소에서 연구자가 직접 면접을 실시하였다. 질문지의 응답이 부실하거나 공감면접에 어려움을 보인 유아의 응답을 제외하고 총 102쌍 질문지와 면접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전북대학교 생명연구윤리위원회 IRB(2022-11-017)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였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5.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기초분석 및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유아특성에 따른 공감의 차이분석을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유아 변인과 어머니 변인이 유아의 공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유아공감의 경향

면접을 통해 평가한 유아의 공감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공감이 야기과제(10개)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공감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각각 0점~30점이며 유아공감 총점의 점수범위는 0점~60점이다. 유아공감의 범위와 평균(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유아공감 총점의 점수범위는 42점~60점이며, 평균은 52.89(3.57)이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인지적 공감의 점수 범위는 23.43~28.52, 평균은 26.55($SD = 1.81$)이며, 정서적 공감의 점수범위는 25.00~28.23, 평균은 26.34($SD = 1.19$)로 나타나 인지적, 정서적 공감 모두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3. 유아공감의 기술통계

($N = 102$)

변인	가능한 점수범위	점수 범위	평균(표준편차)
공감 총점	0 - 60	42.00 ~ 60.00	52.89(3.57)
유아면접			
인지적공감	0 - 30	23.43 ~ 28.52	26.55(1.81)
정서적공감	0 - 30	25.00 ~ 28.23	26.34(1.19)

2. 유아변인(성, 연령, 기질)과 유아공감

1) 성·연령에 따른 유아공감의 차이

유아의 성별, 연령에 따라 공감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유아공감 총점의 경우 남아의 평균($M = 26.06$, $SD = 1.84$)보다 여아의 평균($M = 26.87$, $SD = 1.65$)이 다소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t = 2.34$, $p < .05$). 하위요인별로 보면, 유아의 인지적 공감에서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아의 정서적 공감에서는 남아의 평균($M = 25.87$, $SD = .20$)보다 여아의 평균($M = 26.86$, $SD = .17$)이 다소 높았으며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나타났다($t = 2.69$, $p < .01$). 다음으로, 유아의 연령에 따른 유아공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아의 공감능력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유아 변인(성별, 연령)에 따른 유아공감의 차이 (N = 102)

집단	공감 총점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평균	표준 편차	t	평균	표준 편차	t	평균	표준 편차	t	
성별	남 (n = 53)	26.06	1.84	2.34*	26.25	1.79	1.78	25.87	.20	2.69**
	여 (n = 49)	26.87	1.65		26.88	1.80		26.86	.17	
연령	만4세 (n = 50)	26.66	1.64	1.19	26.78	1.68	1.27	26.54	1.78	1.02
	만5세 (n = 52)	26.21	1.91		26.33	1.92		26.15	2.03	

* $p < .05$, ** $p < .01$

2) 유아기질과 유아공감의 관계

유아의 기질과 공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기질의 하위요인인 부정적 정서성과 사회성 모두 유아의 인지적·정서적 공감과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유아변인(기질)과 유아공감의 관계 (N = 102)

		유아공감 면접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유아	부정정서성	-.11	-.11
기질	사회성	.14	.16

3. 어머니변인(공감, 양육행동, 정서표현성)과 유아공감

어머니변인과 유아공감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어머니의 공감 총점은 유아공감 총점($r = .52, p < .001$), 그리고 인지적·정서적 공감($r = .51, .49, p < .001$)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은 유아공감 총점 및 인지적·정서적 공감($r = .34, .36, .30, p < .01$)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 또한 유아공감 총점, 인지적·정서적 공감($r = .56, .53, .54, p < .001$)과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인지적, 정서적 공감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공감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애정적 양육행동은 유아공감 총점($r = .34, p < .001$), 유아의 인지적·정서적 공감($r = .32, .33, p < .01$)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인 반면, 거부·통제적 양육행동은 유아공감 총점 및 인지적·정서적 공감($r = -.21, -.20, -.21, p < .05$)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어머니가 자녀에게 온정적이고 애정적인 양육을 보일수록 자녀의 공감은 높아지지

만, 자녀의 행동을 억압하고 강요하는 등의 양육을 보일수록 자녀의 공감 능력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유아공감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은 유아공감 총점 및 인지적·정서적 공감($r = .55, .51, .54, p < .001$)과 정적상관을 보인 반면, 부정적 정서표현성은 유아공감 총점 및 인지적·정서적 공감($r = -.26, -.27, -.23, p < .05$)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가 자녀에게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할수록 유아의 인지적·정서적 공감이 높아질 수 있다.

표 6. 어머니변인(공감, 양육행동, 정서표현성)과 유아공감의 관계 (N = 102)

	1	2	3	4	5	6	7	8	9
1. 모공감 총점	1								
2. 인지적 공감	.84***	1							
3. 정서적 공감	.90***	.53***	1						
4. 애정적 양육	.37***	.25*	.39***	1					
5. 거부통제적 양육	-.07	-.05	-.07	-.40***	1				
6. 긍정적 정서표현	.51***	.28**	.59***	.62***	-.23*	1			
7. 부정적 정서표현	.03	.09	-.03	-.29**	.45***	-.22*	1		
8. 공감 총점	.52***	.34***	.56***	.34***	-.21*	.55***	-.26**	1	
9. 인지적 공감	.51***	.36***	.53***	.32**	-.20*	.51***	-.27**	.96***	1
10. 정서적 공감	.49***	.30**	.54***	.33**	-.21*	.54***	-.23*	.96***	.55**

* $p < .05$, ** $p < .01$, *** $p < .001$.

4. 유아변인, 어머니변인이 유아공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 성별, 어머니의 공감, 양육행동,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공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에 앞서 다중공선성과 잔차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해 VIF(분산팽창계수)값과 Durbin-Watson 검정통계량 검증을 실시하였다. VIF의 경우 1에 근접할수록 다중공선성이 없으며, Durbin-Watson은 2에 가까울수록 잔차의 독립성 가정이 충족된다(황해익 등, 2008).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인 각각의 VIF값은 1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으며, Durbin-Watson도 1.02~2.02로 나타나 잔차의 독립성이 확보되어 회귀분석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독립변인 중 성별은 남아 1, 여아 0으로 가변수화 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유아의 성별, 어머니의 공감, 양육행동,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인지적·정서적 공감을 포함한 유아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beta = .36, p < .01$), 긍정적 정서표현성($\beta = .32, p < .01$), 성별($\beta = -.22, p < .05$)이 유아의 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으며, 독립변인의 설명력은 48%로 나타났다($R^2 = .48, F = 12.33, p < .001$).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이 높고, 자녀에게 긍정적인 정서를 자주 표현할수록, 그리고 남아보다 여아의 경우 유아의 공감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7. 유아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N = 102)

변인		B	β	t	
유아 변인	성별	-1.58	-.22	-2.90**	
어머니 변인	공감	.98	.11	1.27	
	정서적공감	2.66	.36	3.38**	
	양육행동	애정적 양육행동	-.95	-.12	-1.13
		거부·통제적 양육행동	-.41	-.05	-.56
표현성	긍정적 정서표현	2.64	.32	2.89**	
	부정적 정서표현	-1.36	-.17	-1.94	

$F = 12.33^{***}$ $R^2 = .48$

** $p < .01$, *** $p < .001$. 성별 가변수 (남아 1, 여아 0)

다음으로, 유아성별, 어머니의 공감, 양육행동,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인지적 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beta = .31, p < .01$), 긍정적 정서표현성($\beta = .29, p < .05$) 및 부정적 정서표현성($\beta = -.20, p < .05$), 유아의 성별($\beta = -.16, p < .05$)이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설명력은 43%로 나타났다($R^2 = .43, F = 10.07, p < .001$). 이는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긍정적인 정서를 자주 표현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덜 표현할수록, 남아보다 여아의 경우 유아의 인지적 공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유아의 정서적 공감에 미치는 유아 및 어머니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beta = .38, p < .01$)과 긍정적 정서표현성($\beta = .32, p < .01$), 유아의 성별($\beta = -.26, p < .01$)이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설명력은 47%로 나타났다($R^2 = .47, F = 11.69, p < .001$). 이는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이 높고, 자녀에게 긍정적인 정서를 자주 표현할수록, 그리고 남아보다 여아의 경우 유아의 정서적 공감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8. 유아의 인지적 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N = 102)

변인		B	β	t
유아변인	성별	-.59	-.16	-2.05*
공감	인지적공감	.71	.16	1.73
	정서적공감	1.18	.31	2.82**
모 변인	양육 행동	-.46	-.11	-1.04
	거부·통제적	-.15	-.04	-.39
표현성	긍정적정서표현	1.23	.29	2.53*
	부정적정서표현	-.83	-.20	-2.25*

$F = 10.07^{***}$ $R^2 = .43$

* $p < .05$, ** $p < .01$, *** $p < .001$. 성별 가변수 (남아 1, 여아 0)

표 9. 유아의 정서적 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N = 102)

변인		B	β	t
유아변인	성별	-.99	-.26	-3.35**
어머니 공감	인지적공감	.27	.06	.65
	정서적공감	1.48	.38	3.49**
모 변인	양육 행동	-.48	-.11	-1.07
	거부·통제적	-.26	-.06	-.66
정서 표현성	긍정적정서표현	1.42	.32	2.87**
	부정적정서표현	-.52	-.12	-1.38
		$F = 11.69^{***}$		$R^2 = .47$

** $p < .01$, *** $p < .001$. 성별 가변수 (남아 1, 여아 0)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4~5세 유아를 대상으로 10개의 유아공감 이야기과제를 사용하여 면접을 시행하고 유아의 인지적·정서적 공감 수준을 살펴보았다. 유아의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으로 유아변인(성별, 연령, 기질)과 어머니 변인(공감, 양육행동, 정서표현성)을 선정하고, 이들 변인과 유아공감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유아변인과 어머니변인이 유아의 인지적·정서적 공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PPT슬라이드와 그림카드를 활용한 면접방법으로 유아의 공감을 측정된 결과, 인지적 공감의 평균은 26.55, 정서적 공감의 평균은 26.34로 점수 범위(0~30점)를 고려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의 평균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대상 유아는 다른 사람의 정서적 상황을 인지적으로 잘 이해하고 자신의 일처럼 느끼고 반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본 연구와 유사한 면접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슷하다. 류현강(2015)의 연구에서는 공감 능력 전체의 평균이 중간점수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과 중국 유아를 대상으로 한 진옥(2022)의 연구에서는 한국 유아가 중국 유아에 비해 공감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유아의 공감수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경향은 최근 가정과 기관에서 영유아의 인성발달 및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일상적으로 인성지도 및 교육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유아를 대상으로 한 공감교육에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왔다(강경희 2019; 정하나, 2015; 현지영, 김수영, 2015). 이러한 인성 및 공감 교육은 유아의 공감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직접 면접도구를 활용한 공감 측정을 실시하였다. 보다 정확한 유아공감을 측정하기 위해 유아의 발달과 상황에 적합한 이야기과제를 추가하고 면접도구를 수정·보완하였다. 또한 선정된 이야기과제에 맞게 PPT슬라이드에 그림상황을 녹음하는 방식으로 제작하여 면접도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유아의 공감수준이 유아변인(성별, 연령, 기질)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여아가 남아보다 정서적 공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강보람, 2017; 고희갑 등, 2015; 안선정, 2019; 장미선, 문혁준, 2004; Auyeung et al., 2009)와 유사하다. 여아가 남아에 비해 공감능력이 더 높은 결과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Eisenberg와 Lennon(1980)은 여아가 남아보다 타인의 내적상태를 해석하고 인지하는 능력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공감의 하위요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선행연구에서는 인지적 공감보다 정서적 공감의 성별 차이에 대해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정서적 공감에서만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는데, 이러한 결과에 대해 Chaplin 등(2005)은 부모의 정서사회화에 따른 양육행동이 여아의 정서표현성이나 정서적 공감을 향상시키는데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다른 연구자들은 부모가 여아의 정서표현성에 높은 수준의 반응과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대인관계와 정서적 경험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과 연결된다고 보았다(Hasting et al., 2000). 이처럼 유아의 정서적 공감에 있어서 부모의 반응 태도에 따라 성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겠다.

셋째, 유아의 기질과 유아공감 간의 관계를 살펴볼 결과, 유아의 기질은 유아의 인지적·정서적 공감과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연구결과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요인 중 사회성이 유아의 공감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장미선, 문혁준, 2004).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유아의 기질과 공감능력을 측정하는 측정변인을 생각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공감능력을 유아면접방법을 통해 실시하였는데, 유아면접을 통해 측정한 공감능력과 어머니가 보고한 유아의 기질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가 질문지로 보고한 유아의 공감능력과 기질 사이에는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나(장미선, 문혁준, 2004) 차이가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연구변인들을 모두 어머니가 보고한 것을 고려해 볼 때 평가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는 연구결과를 해석할 때 연구변인만을 보고 결과를 단정 짓기보다는 연구변인을 측정한 방식이나 평가자를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해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어머니 변인들과 유아의 공감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어머니의 인지적·정서적 공감은 유아의 인지적·정서적 공감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유아의 인지적·정서적 공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안선정, 2019; 최은정, 2015)를 지지한다. 부모의 공감적이고 지지적인 반응은 유아가 타인의 욕구에 대해 공감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며(안미현, 김정미, 2017), 자녀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지적인 상호작용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녀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김영희, 고태순, 2014; Clark & Ladd, 2000). 즉 공감적인 부모는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의 생각과 느낌을 이해하고 감정을 공유하기 때문에 자녀는 이를 바탕으로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인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유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자

녀의 공감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부모 스스로 감정을 잘 인식하고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고 지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의 공감능력과 안정적 정서발달의 토대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공감능력과의 관계에서, 애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공감과 정적상관을 보인 반면, 거부·통제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공감과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어머니가 자녀에게 온정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자녀의 공감은 높아지지만, 자녀의 행동을 억압하고 강요하는 등의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자녀의 공감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행동이 자녀의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밝힌 선행연구들(강정희, 이은희, 2009; 이순자, 오숙현, 2004; 황희정, 2013)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자녀의 행동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공감능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들(장미선, 문혁준, 2004; 최은정, 2015)과도 유사한 결과이다.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가진 어머니의 경우 자녀가 자신의 입장보다는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며, 타인의 감정에 어떻게 민감해야 하는지를 유도함으로써 자녀의 공감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게 된다(문연심, 2004). 반면에, 통제적인 양육행동의 경우 유아가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금지와 억제를 강요하는 경향이 있어 남을 생각하는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다(Hoffman & Saltzstein, 1967). 따라서 유아의 공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모의 애정적이며 합리적인 양육행동의 균형이 중요함을 다시금 강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공감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은 유아의 공감과 정적상관을 보인 반면, 부정적 정서표현성은 유아의 공감과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뿐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정서표현성은 가정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기쁨, 칭찬, 감사, 애정 등의 정서를 표현하는 긍정적 정서표현성과 불만, 무시, 화, 비난 등의 정서를 표현하는 부정적 정서표현성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정서를 더 자주 표현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이러한 결과는 평소 어머니가 긍정적인 정서를 자주 표현하며 자녀의 기분과 정서 상태를 살피고 수용할수록 유아는 공격성보다 공감과 관련된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반면, 화남이나 불만 등의 부정적 정서를 표출하거나 축소·과민반응을 보일수록 자녀의 문제행동이 높고 낮은 수준의 공감을 보였다는 선행연구들(곽운숙, 2018; 김민서, 이진숙, 2019; 윤경미, 한세영, 2017; Garner & Dunsmore, 2011; Hoffman, 2011; Strayer & Roberts, 2004)과도 유사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공감관련 변인들이 유아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유아변인에는 성별, 어머니변인으로는 어머니의 공감, 정서표현성이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아인 경우,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이 높은 경우,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이 높고 부정적 정서표현성이 낮은 경우 유아의 공감능력을 높일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논의한 관련변인과 유아공감능력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관련성은 나타났으나 예측요인으로서의 영향력은 다소 낮아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변인은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과 양육행동이었

다.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에서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은 유아의 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정서적 공감은 유의미한 예측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는 어머니의 공감에 있어서 정서적 공감이 인지적 공감에 비해 유아의 공감능력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뇌 과학에 따르면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에 따라 작동되는 뇌의 부위가 서로 다르다고 알려져 있다. 정서적 공감이 일어날 때 관여하는 뇌의 영역은 뇌도엽, 편도체, 하측 전두회 등이고 (Shamay-Tsoory et al., 2009), 인지적 공감이 일어날 때 관여하는 뇌의 영역은 전전두 피질, 후측 상측부, 측도-두정엽이다(박민 등, 2007; Carrington & Bailey, 2009). 이처럼 활성화되는 영역이 다르고 작용하는 역할도 다른 두 공감에 있어서, 유아의 공감발달에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이 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린시기에 부모는 자녀의 삶의 모델로서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을 따라 배우게 된다. 즉 부모가 타인에게 공감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타인의 불행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 무엇인지 보여주며, 자녀의 관심사에 대해서 더 공감적으로 반응할 때 자녀의 공감능력이 발달할 수 있다(김홍일, 2006). 이처럼 평소 부모가 자녀에게 정서적인 공감반응을 많이 보여줄수록 자녀 역시 부모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보다 도덕적이고 성숙한 공감능력이 형성, 발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중다회귀분석 결과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유아의 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나 양육행동은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어머니의 긍정적·부정적 정서표현성이 양육행동보다 유아의 공감능력 발달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정서표현성의 영향력을 함께 살펴본 연구가 많지 않으나 류현강(2015)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공감능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반해 인성지향적 언어통제유형은 유아의 공감능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한바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부모로서 자녀를 대하는 전반적인 양육행동보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감정의 표현이나 언어표현이 더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나타낸다. 양육행동은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가치·행동·태도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상호작용인 반면, 정서표현성은 가정내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초점을 둔 보다 구체적인 정서의 표현을 의미하는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이는 기쁨이나 분노, 비난·화와 같은 어머니의 감정표현이 얼굴 표정이나 제스처와 같은 비언어적 표현과 함께 유아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유아의 공감능력이나 정서발달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자녀와의 상호작용 시 자녀에게 감정을 알아주며 감사와 애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부정적 정서를 적절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머니의 태도를 모델링하여 자녀의 공감능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유아의 공감능력은 개인변인보다 어머니변인에 더 영향을 받으며,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수준이 높고 자녀에게 긍정적인 정서표현성을 많이 보일수록 유아의 공감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유아의 공감은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공감의 세대간 전이가 일부 지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공감 이야기과제(10개)를 통해 유아의 인지적·정서적 공감수준을 평가한 결과, 본 연구대상 유아의 대다수는 인지적·정서적 공감 발달이 적절한 수준으로 발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인지발달이 미흡한 유아들에게 일상적 상황을 제시한 이야기와 그림을

제시하는 발달에 적합한 면접도구를 통해 취학전유아의 공감 수준을 직접 평가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유아의 발달과 상황에 적합한 유아공감 이야기과제를 추가선정하고, 이야기과제를 기존의 그림카드 대신 PPT슬라이드에 목소리를 녹음하여 태블릿화면으로 제시함으로써 유아들이 이해하기 쉽고 편안하게 제시하였다. 둘째, 유아공감의 예측요인 분석 결과, 여아가 남아보다 공감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공감의 차이를 볼 때 성별에 따라 공감능력 증진을 위한 차이있는 개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특히 남아의 공감능력 향상을 위해 가정과 기관에서 보다 민감한 상호작용 및 감정언어의 소통과 지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어머니의 공감과 정서표현성은 유아공감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특히 어머니의 공감능력과 긍정적·부정적 정서표현성과 같은 환경적 변인의 영향을 많이 받음을 알 수 있었다. 유아의 공감은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공감의 세대간 전이가 일부 검증되었다. 또한 애정적 양육행동과 함께 어머니 정서표현성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쁨이나 비난, 화와 같은 어머니의 감정표현이 얼굴표정이나 제스처와 같은 비언어적 표현과 함께 유아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유아의 공감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어머니의 공감능력과 긍정적·부정적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공감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부모의 공감능력 증진 및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에 중점을 둔 감정코칭프로그램 개발·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북의 일부지역 유아교육기관 재원 유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지역과 연령을 확장하여 연구의 일반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아공감 면접도구는 이야기과제를 수정·보완하고 실시방법을 개선하는 등 신뢰도·타당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기쁨과 화남 정서상황의 이야기과제만이 각 1개씩 추가되어 이 부분의 공감능력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은 연구의 제한점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결과를 해석할 때 각 정서상황의 과제수가 다르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후속연구를 통해 공감도구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교사 등 다양한 보고원을 포함하고 면접법 외에 관찰/실험 연구 등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일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아를 대상으로 공감능력 측정을 위한 면접을 실시하고 유아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을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유아의 공감발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였으며 공감능력 증진을 위한 중재프로그램 개발과 부모교육의 기초자료를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경희 (2019). 유아공감 능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효과 연구. 중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민주 (2010).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과 유아의 공감능력 및 자기조절 능력과의 관계.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보람 (2017). 미디어 사용시간과 부모의 미디어 중재가 유아의 공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정희, 이은희 (2009).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 자녀의 공감능력: 5요인 성격의 매개역할. **한국청소년연구**, 20(4), 71-103.
- 고희갑, 심숙영, 임선아 (2015). 유아용 공감척도(EQ-YC) 타당화 예비연구. **아동교육**, 24(1), 59-80.
- 곽운숙 (2018).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성과 인성지향적 언어통제유형이 유아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배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연희 (2013). 유아의 사회적 위축에 대한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과 정서표현성 및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의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2), 215-238.
- 김목경 (2019). 유아의 기질 유형에 따른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모의 반응과 모의 공감능력, 양육스트레스의 차이: 잠재프로파일 분석의 적용.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서, 이진숙 (2019).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정서표현이 아동의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 아동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아동과 권리**, 23(3), 461-480. <http://doi.org/10.21459/kccr.2019.23.3.461>
- 김영희, 고태순 (2014). 중학생의 희망 및 공감과 행복감과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4(10), 330-338. <http://doi.org/10.5392/JKCA.2014.14.10.330>
- 김진희 (2009).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수용태도와 유아의 공감능력이 유아의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홍일 (2006). 공감의 도덕교육적 함의 - M. L. Hoffman의 이론을 중심으로. **도덕교육학연구**, 7(1), 97-117.
- 김효진 (2017). 공감교실 : 공감에 대한 유아교사의 이해. **유아교육학논집**, 21(6), 127-158.
- 노민지 (2008). 기질의 같고 다름에 따른 어머니-영아 상호작용 사례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성은 (1999). 3세 유아의 감정이입 능력에 관련된 변인들: 유아의 성,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현강 (2015).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인성지향적 언어통제유형이 유아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미라 (2017).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또래관계 관리전략 및 유아의 사회적능력 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보경 (2012).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표상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승미 (2006).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과 유아의 문제행동 및 정서조절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연심 (2004). 부모-자녀관계 유형이 유아의 공감능력과 조망수용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24(1), 115-143.
- 박민, 이승복, 김혜리, 윤효운 (2007). 마음이론의 신경기초.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2), 39-62.
- 박성희 (1994). **공감, 공감적 이해**. 원미사.

- 박성희 (2004). **공감학: 어제와 오늘**. 학지사.
- 손상희 (2013).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낙관성에 미치는 효과: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을 매개로.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수희 (2014). 유아의 공감능력과 학습관련 사회적기술 및 사회적 의사소통능력 간에 관계. **영유아아동교육지원연구**, 2(2), 1-20.
- 안미현, 김정미 (2017). 유아의 놀이성 및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유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4(4), 213-228. <http://doi.org/10.22155/JFECE.24.4.213.228>
- 안선정 (2019). 부모의 공감능력과 유아의 공감능력 배려행동, 행복감간의 구조적 관계,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여은진 (2009). 유아의 어머니의 정서성,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 및 유아 정서조절간의 구조분석. 덕성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명자, 신유림 (2019). 유아의 사회적 선호도 및 영향력과 공감능력, 공격성 및 자아존중감의 관련성. **한국보육학회지**, 19(3), 171-182. <http://doi.org/10.21213/kjceec.2019.19.3.171>
- 유우영 (1998). 유아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양육관련변인의 인과관계.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경미, 한세영 (2017).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이 유아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3(3), 83-102. <https://doi.org/10.14698/jkce.2017.13.03.083>
- 이미양 (2015).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지능과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숙, 류현강 (2014).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놀이치료연구**, 18(3), 1-16.
- 이순자, 오숙현 (2004).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유아의 대인문제 해결사고와 공감능력과의 관계. **특수아동연구**, 6(2), 333-353.
- 이승미 (2015).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양순, 정영숙, 이기영 (2006).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및 또래 유능성. **한국보육지원학회지**, 2(1), 41-63.
- 이용주, 백승학 (2017). 유아의 공감 및 동정심, 도덕적 행동, 사회적 유능성의 구조적 관계적 분석. **유아교육학회논문집**, 21(2), 445-464.
- 임희진, 진미경 (2014).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놀이치료연구**, 17(4), 419-438.
- 장미선, 문혁준 (2004). 유아의 공감에 관련된 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9), 53-66.
- 정하나 (2015). 극화놀이를 통한 유아공감능력 증진프로그램개발 및 효과.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혜리 (2009). 양육행동, 공감능력, 분노표현 및 청소년 비행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

위 논문.

- 지소라 (2009).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공감능력의 관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옥 (2022).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공감능력의 매개효과에 대한 한국과 중국 비교.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은정 (2015). 부모의 공감 및 양육태도와 유아공감 간의 관계: 매개적 양자모형.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세영 (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적 부조화에 따른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현지영, 김수영 (2015). 공감뿌리 프로그램이 유아의 공감능력 향상과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 *아동교육*, 24(3), 313-328. <http://doi.org/10.17643/KJCE.2015.24.3.17>
- 황해익, 송연숙, 최혜진, 송원경 (2008). *영유아 · 아동연구에서의 SPSS 자료분석*(개정판). 창지사.
- 황희정 (201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공감능력 및 공격성의 관계: 자기조절능력의 조절효과.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uyeung, B., Wheelwright, S., Allison, C., Atkinson, M., Samarawickrema, N., & Baron-Cohen, S. (2009). The children's empathy quotient and systemizing quotient: Sex differences in typical development and in autism spectrum condition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39(11), 1509. <http://doi.org/10.1007/s10803-009-0772-x>
- Borke, H. (1971). Interpersonal perception of young children: Egocentrism or empathy? *Developmental Psychology*, 5(2), 263-269. <https://doi.org/10.1037/h0031267>
- Bryant, B. (1982). An index of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3, 413-425. <https://doi.org/10.2307/1128984>
-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Lawrence Erlbaum.
- Campbell, S. B., Shaw, D. S., & Gilliom, M. (2000). Early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Toddlers and preschoolers at risk for later maladjustment. *Development & Psychopathology*, 12, 467-488. <https://doi.org/10.1017/S0954579400003114>
- Carrington, S. J., & Bailey, A. J. (2009). Are there theory of mind regions in the brain? A review of the neuro in aging literature. *Human Brain Mapping*, 30(8), 2313-2335. <https://doi.org/10.1002/hbm.20671>
- Chaplin, T. M., Cole, P. M., & Zahn-Waxler, C. (2005).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expression: Gender differences and relations to child adjustment. *Emotion*, 5(1), 80-88. <https://doi.org/10.1037/1528-3542.5.1.80>
- Clark, K. E., & Ladd, G. W. (2000). Connectedness and autonomy support in parent-child relationships: Links to children's socio-emotional orientation and peer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36(4), 485-498. <https://doi.org/10.1037/0012-1649.36.4.485>
- David, H. (2013). *공감의 힘*(이진경 옮김). 지식의 숲. (원판 2012).

- Davis, M. H.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1-19.
- Davis, M. H. (1994). *Empathy: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Westview Press.
- Denham, S. & Kochanoff, A. T. (2002). Parental contributions to preschoolers' understanding of emotion. *Marriage & Family Review, 34*(3-4), 311-343. https://doi.org/10.1300/J002v34n03_06
- Eisenberg, N., & Fabes, R. A. (1994).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temperament and anger behavior. *Merrill-Palmer Quarterly, 40*, 138-156.
- Eisenberg, N., & Lennon, R. (1980). Altruism and the assessment of empathy in the preschool years. *Child Development, 51*, 552-557. <https://doi.org/10.2307/1129290>
- Feshbach, N. D. (1975). Empathy in children: Some theoretical and empirical considerations. *Counseling Psychologist, 5*, 25-30. <https://doi.org/10.1177/001100007500500207>
- Feshbach, N. D., & Roe, K. (1968). Empathy in six-and seven-year-olds. *Child Development, 34*, 133-145. <https://doi.org/10.2307/1127365>
- Garner, P. W., & Dunsmore, J. C. (2011). Temperament and maternal discourse about internal states as predictors of toddler empathy-and aggression-related behavior. *Journal of Early Childhood Research, 9*(1), 81-99. <https://doi.org/10.1177/1476718X10366778>
- Halberstadt, A. G., Cassidy, J., Stifter, C. A., Parke, R. D., & Fox, N. A. (1995). Self-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context: Psychometric support for a new measure. *Psychological Assessment, 7*(1), 93-103. <https://doi.org/10.1037/1040-3590.7.1.93>
- Hastings, P. D., Zahn-Waxler, C., Robinson, J., Usher, B., & Bridges, D. (2000). The development of concern for others in children with behavior problems. *Developmental Psychology, 36*(5), 531-546. <https://doi.org/10.1037/0012-1649.36.5.531>
- Hoffman, M. L. (2011). *공감과 도덕발달: 배려와 정의를 위한 함의들*(박재주, 박균열 옮김). 철학과 현실사. (원판 2000).
- Hoffman, M. L., & Saltzstein, H. D. (1967). Parent discipline and the child's moral develop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45-57. <https://doi.org/10.1037/h0024189>
- Howe, A., Pit-ten Cate, I. M., Brown, A., & Hadwin, J. A. (2008). Empathy in preschool children: The development of the Southampton Test of Empathy for Preschoolers (STEP). *Psychological Assessment, 20*(3), 305-309. <https://doi.org/10.1037/a0012763>
- Jolliffe, D., & Farrington, D. P. (200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basic: Empathy scale. *Journal of Adolescence, 29*(4), 589-611. <https://doi.org/10.1016/j.adolescence.2005.08.010>
- Schaefer, E. S. (1959). A circumflex model of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2), 226-235. <https://doi.org/10.1037/h0041114>
- Shamay-Tsoory, S. G., Aharon-Peretz, J., & Perry, D. (2009). Two systems for empathy: A double dissociation between emotional and cognitive empathy in inferior frontal gyrus versus ventromedial prefrontal lesions. *Brain, 132*(3), 617-627. <https://doi.org/10.1093/brain/awn279>

- Stern, J. A. (2016). *Empathy in parents and children: Links to preschoolers attachment and aggressio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 Strayer, J., & Roberts, W. (2004). Children's ang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empathy: Relations with parents' empathy,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parenting practices. *Social Development, 13*, 229-254. <https://doi.org/10.1111/j.1467-9507.2004.000265.x>
-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Brunner/mazel.

논문투고: 23.10.15.
수정원고접수: 23.11.20.
최종게재결정: 23.12.03.